

‘여대야소’ 18대 첫 정기국회 쟁점과 전망

“좌편향 법안 정비” vs “과거 회귀 입법 저지”

18대 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좌편향, 반(反)기업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버리고 있고, 민주당은 ‘과거회귀 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여야간 극한 대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일정=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세제개편안, 규제개혁, 민생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또 2~3일 이틀간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한다.

국회는 이어 오는 10월 초부터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대정부 질문에 이어

‘4년 국회운영 시금석’ 쟁점법안 대결돌 예고
인사청문·방송정책·한미FTA도 공방 예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2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9~1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한나라당은 우선 불법시위로부터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사용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시위현장에서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도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안정국을 이끌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판단, 강력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재산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위한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나라당의 입법 논리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 폐지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국현안=법안 뿐 아니라 방송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이어 방송장악 논란을 확산시킬 조짐들이 줄줄이 대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송 구조개편 작업과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의 방송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KBS 2TV와 MBC 민영화, YTN 주식 민간 매각 문제가 방송장악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대체, 후(後)비준’을 내세워 피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할 경우 비준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임태희(가운데)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세 감면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미정”

청와대는 지난 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9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교도(共同)통신 보도와 관련,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행사에 이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 “결

정이 되면 즉시 발표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한 참모는 “9월 하순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며 참석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확정단계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9월 일본 개최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방침을 정하고 일정과 개최장소 등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민생국회’ 될까 ‘서민 입법’엔 공감... 각론선 온도차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입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각 당의 이념과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국회’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 찾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민생·경제 법안을

여 “유가 환급금·신불자 대책 등 경제 법안 처리”

야 “부가세 인하·택시업계 지원 입법 등 총력”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계정 간 대출금 이자 감면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보조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을 마련, 금융 서비스에 제공하는 사회적임연대 은행법 등 각종 민생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정

책’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현행 중부세 유지를 통한 보완입법, 집시법 개정 등 여당과 차별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경연관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진흥법 ▲주택거래세 50% 경감 정책 등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재완 靑 국정기획수석 광주 초청 강연

3일 선진화시민행동 창립 기념식

박재완(사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3일 선진화시민행동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선진화시민행동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뒤 ‘새 정부 비전과 국정철학, 주요 국정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광주에서 강연 등 공식행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수석은 강연 뒤 광주·전남지역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선진화를 목표로, 박영구 전 호남발전협의회 이사장, 황백 전남대 교수 등 10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It features the text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and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www.kimyoung.co.kr and details about a public explanation meeting on September 1st.

Advertisement for '7.9 공무원 합격강좌' (7.9 Public Employee Exam Preparation Course). It lists various exam types like '국가직', '지방직', and '강좌직종'. It also mentions '무등고시학원' and provides a website www.mdgosl.co.kr and phone number 222-4560.

Advertisement for SCU (Seoul Christian University) in Korea. It promotes '한국의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ing in Korea! Possible in Korea!) and lists 'SCU한국의대' as a partner.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www.scukorea.com and phone number 010-6834-6253.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It features the text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and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서구점 361-8111 and 북구점 268-8111.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Public Brokerage Final Problem Solving Special Lecture on September 1st). It mentions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www.landkor.com and phone number 227-8003.